

태국 2018:

군부의 ‘불완전한’ 민간정부 복귀를 위한 막바지 준비*

김흥구** · 이미지***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2018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 경제, 외교, 한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8년 태국은 각 정당의 당대표 선출 및 신당 창당 등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한 해였다. 2018년 태국정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은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일정이었다. 2017년 헌법으로는 사실상 ‘완전한’ 민정이양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은 여러 차례 총선시기를 연기했다. 총선 후에도 지금과 같은 군부의 체제유지가 보장되는, 즉 ‘불완전한’ 민간정부의 탄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다. 태국정부가 총선 실시를 약속하면서 미국과 EU와의 정치적 관계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한편 2018년 태국경제는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전년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갔다. 현 군사정부가 집권초기에 내놓은 EEC경제개발계획도 진척을 보인 한 해였다. 특히 동 계획의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은 더욱 밀접해졌다. 총선 후 안정적인 민정이양 여부와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대외관계 및 태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향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B00016). 본고의 발전을 위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창의융합학부 교수, hongkoo@bufs.ac.kr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HK연구교수, image0121@hotmail.com

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주제어: 태국, 군사정권, 민정이양, 총선거, 동부경제회랑(EEC), 대외관계, 불완전한 민간정부

I. 서론

태국의 2018년은 각 정당의 당대표 선출 및 신당 창당 등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한 해였다. 2018년 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은 민간정부 이양을 위한 총선일정이었다. 태국에서는 2014년 5월 쿠데타 후 정권을 장악한 군부의 통치가 약 5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군사정권 주도 하에 만들어진 2017년 헌법은 군부의 정치개입을 제도화시켰다. 태국은 군사통치가 장기화되고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 등이 지속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¹⁾ 2017년 헌법으로는 군부가 사실상 임명하게 되는 상원 250명이 하원과 함께 총리선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총선 후에도 ‘완전한’ 민정이양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현 군사정권은 총선 후에도 지금과 같은 군부의 체제유지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총선 실시를 여러 차례 연기해왔다. 2018년에 들어와서 빠른 총선 실시를 요구하는 국내외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2018년 12월 11일 태국정부는 총선거를 2019년 2월 24일에 실시할 것이라는 방침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총선일은 3월

1) 미국의 비영리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쿠데타 후 태국의 정치적 상황을 ‘자유가 없는 국가’로 평가했다. 특히 2017년 헌법이 친군부적이며 정당정치를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또한 선출되지 않는 국가평화유지위원회와 국가입법회의의 정당성 부재와 정치활동의 금지, 언론탄압, 부정부패, 연고주의 등을 비판했다. Freedom House,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freedom-world-2018> (검색일: 2018.04.05).

24일로 다시 한 차례 연기되었지만, 총선을 앞두고 2018년 9월에는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회의 개최가 허가되었고, 선거일이 발표된 12월부터는 그동안 전면적으로 금지 및 제한되어 있던 정치활동의 규제도 해제되었다.²⁾

한편 군사정권은 민간정부 복귀를 앞두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 성장은 군부 집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018년 태국경제는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15년부터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현 군사정부가 집권초기에 내놓은 EEC경제개발 정책도 진척을 보인 한 해였다. 특히 동 계획의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은 더욱 밀접해졌다. 또한 2018년은 한국과 태국이 수교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본고의 목적은 2018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 경제, 외교, 한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평가하며,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논문이 집필 될 당시, 태국에서는 총선이 실시되었다. 2019년 3월 24일 시행된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은, 쿠데타 직전에 이루어진 2014년 2월 총선을 헌법재판소가 무효 처리했기 때문에, 사실상 2011년 7월 이후 8년 만의 총선이 된다. 본고의 결론 부분에서 이번 총선 결과와 그 속에 담긴 정치, 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고자 한다.

2) 태국정부는 그동안 5명 이상의 집회와 정당 활동, 일부 정치인의 해외출국 등을 금지하고 있었다.

II. 정치

1. 총선 연기와 군부의 신당 창당

2018년 태국정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은 민간정부 이양을 위한 총선일정이었다. 사실상 쿠데타 후 2015년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던 총선은 공식적으로 4차례나 연기되었다. 빠라웃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총리는 2016년 8월에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 한 후, 2018년 11월 중에는 총선을 시행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었다. 하지만 국가입법회의(NLA)가 2018년 1월에 하원의원 선거법의 시행일을 90일 늦추는 법안을 가결시키면서, 총선이 2019년 2월까지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빠라웃 총리는 또 다시 2월에서 5월로 총선이 늦추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왕에게 제출한 상하원 선거법이 승인을 받고 발효되면 법적으로는 2월에 개최될 수 있지만, 늦으면 5월까지도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선 연기의 명분이 되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국왕의 대관식 개최 소식이었다. 2016년 10월 13일에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라마 9세) 전 국왕이 서거하면서 같은 해 12월 1일에 와치라롱꼰(Maha Vajiralongkorn, 라마 10세) 국왕이 즉위했지만, 그 해 말로 예정되었던 대관식은 2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치러지지 못하고 있었다. 2018년 6월에 빠라웃 총리가 총선에 앞서 대관식이 거행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래, 대관식은 총선일정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태국왕실은 2019년 1월 1일에 대관식을 5월 4일에서 6일까지 3일간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Reuters 2019/01/01). 국왕 대관식 행사 일정과 총선 일정이 겹치면서 총선일은 최종적으로 2월에서 한 달 연기된 3월 24일로 확정되었다. 총선이 원래 계획대로 2월 24일에 실시 될 경우에 투표 결과는

두 달 뒤인 4월 25일경에 발표되며,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한 첫 국회가 5월 9일까지 열려야하는데, 이 시기가 대관식 전 후 각각 2주 동안 진행되는 관련 행사들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정부는 선관위에 총선 일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었다.

총선에 대비해 군부는 직접 신당 팔랑쁘라차랏당(Palang Pracharat Party) 창당에 박차를 가했다. 신당은 이른바 썸밋(Sam Mit)그룹을 통해서 탁신허 타이락타이당(Thai Rak Thai Party)과 그 후신인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의 거점이 되고 있는 동북부 지역의 국회의원과 탁신허을 지지하는 원외 외곽단체인 레드셔츠 반독재 민주주의 연합전선(UDD)회원을 빼내와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썸밋그룹은 민주당 의원 빼돌리기에도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그룹의 주요 인물은 과거 탁신허이 이끌던 타이락타이당의 주요 인사였던 현 경제 부총리 쏘킵 짜뚜씨피탁(Somkid Jatusripitak)을 비롯해 전직 장관 쏘삭 텡쑤틴(Somsak Thepsuthin)과 쑤리야 쩡룽르엥깃(Suriya Jungrungreangkit) 등이다. 이들은 탁신허 정부의 대표 브랜드인 탁시노믹스(Thaksinomics)의 주요한 입안자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뒤에서 실제로 군림하고 있는 인물은 2014년 쿠데타를 주도한 군부의 말형 격인 현 부총리 뿌라윳 왕쑤완(Prawit Wongsuwan)이다(The Nation 2018/10/05).

뿐만 아니라 프어타이당과 함께 양대 정당인 민주당을 견제하게 될 쑤텡 트억쑤반(Suthep Thaugsuban)이 지지하는 루엠평랑쁘라차차타이당(Ruam Palang Prachachart Thai Party)도 창당되었다. 친군부 정당이다. 쑤텡은 민주당 정권에서 부총리를 지내기도 했으나, 2013년 말에 민주당에서 분리되어 나와 소위 민주개혁위원회(PDRC)를 만들어서 임명총리제를 주장하고 쿠데타를 지지한 극우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당은 민주당의 아성인 남부지역에서 민주당 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쑤텡은 남부지방에

서 가장 큰 규모의 쑤랏타니(Surat Thani)에 지역구를 보유하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2. 정당구도와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

총선 실시를 앞두고 구성된 정당들은 크게 3개 그룹, 즉 친 군부정당과 반 군부정당, 중도정당으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친 군부정당은 빠라웃을 총리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팔랑쁘라차랏당과 뿌라차춘빠띠룹당(Prachachuen Patirub Party), 루엠폰팔랑쁘라차랏당이 이 그룹에 포함된다. 그리고 반 군부정당으로는 프어타이당과, 자매 정당인 타이락싸찰당(Thai Raksa Chart Party), 프어찰당(Puea Chat Party)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아나콧마이당(Anakhot Mai Party), 쉐리루엠타이당(Seri Ruam Thai Party), 뿌라차랏당(Prachachat Party)등도 반 군부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도정당은 엄밀히 말해서 지금까지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그룹에 포함되는 정당은 민주당과 품짜이타이당(Bhumjaithai Party), 찻타이팻타나당(Chartthaipattana Party), 찻팻타나당(Chartpattana Party)등 이다.

총선 시행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로 국민이 선호하는 정당 1위는 탁썬계 프어타이당이고, 2위가 군부계 팔랑쁘라차랏당, 3위가 민주당, 4위가 아나콧마이당, 5 위가 쉐리루엠타이당 순이었다. 총리 선호도에서는 1위가 현 총리인 빠라웃, 2위가 프어타이당의 쑤다랏 계유라판(Sudarat Keyuraphan), 3위가 민주당의 아피썬 웨차치와(Abhisit Vejjajiva), 4위가 아나콧마이당의 타나턴 썽룽르엥깃(Thanathorn Juangroongruangkit)이었다.³⁾

3) https://en.wikipedia.org/wiki/2019_Thai_general_election (검색일: 2019/03/24)

군사정권은 총선이 끝나면 탁싌과 잉락 친나왓(Yingluk Shinawatra)이 지지하는 프어타이당과 그 자매 정당을 배제하고, 팔랑쁘라차랏당을 중심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려고 한다. 지금으로서는 프어타이당이 선거에서 제1당이 되더라도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으며, 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과 뿌라웃 지지를 선언한 다수 군소정당 간의 연정 가능성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프어타이당은 자매정당과 함께 원내 제1당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하고, 각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는 지역선거구의 하원의원으로 당선된다. 또한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의 득표수든 그렇지 않는 정당의 득표수든 그것과 상관 없이, 지역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득표한 수를 산정하여 비례대표 하원 의원수를 배정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는 다른, 변형된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여 군소정당에 유리하게 함으로써, 대정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⁴⁾ 이에 대비해 프어타이당은 제1당의 목표를 달성하고 원내 과반의석 확보를 위해서 프어락싸찰당, 프어탐당, 프어찰당 등의 자매정당을 만들어 두었다.

향후 연정 구성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중도정당들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오랜 기간 프어타이당과 적대관계였던 민주당 또한 군사통치의 제도화(특히 원외총리와 임명직 상원제도 등)에 반대

4) 명부제에 따른 국회의원(하원의원)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모든 당이 전국에서 획득한 득표수를 하원의원 총 수인 500으로 나눈 후(의원 1명 당 득표수가 됨), 다시 각 당의 득표수를 의원 1명 당 득표수로 나누면 그 당에 할당된 국회의원 수를 산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각 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정당의 명부제에 따른 국회의원 수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어떤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할당된 국회의원 수보다 적을 경우, 비례대표 의원수로 채워서 보상받는다. 반대로 정당에 할당된 국회의원 수보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명부제에 따른 국회의원 수를 배정되지 않는다.

하면서 점차 군정과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쉐넹의 루엠펠랑쁘라차차타이당의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썸밋그룹의 의원 빼들리기에 시달렸다. 이에 민주당 사무총장은 프어타이당과의 연정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양당의 정치성향을 생각했을 때 그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여러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이 현재 군정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탁싌을 축출한 2006년 쿠데타와 2014년 쿠데타를 지지한 전력으로 봐서 총선 후 실제로 군부세력이 연립정부 합류를 요청할 경우 응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한편 반 군부정당 중에서는 아나콧마이당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대표로 선출된 인물은 창당 당시부터 군부 통치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태국 정계의 차기 주자로 주목받아 온 태국 썸밋그룹(Thai Summit Group) 부회장 출신인 타나틴(1978년생)이다. 타나틴 당대표는 선거기간 동안 군부가 주도했던 헌법의 개정, 국방예산 감축, 개혁적이고 투명한 정부 등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3. 군부에 유리한 총리 선출방식의 제도적 마련과 뿌리웃 총리의 재집권 가능성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7년 헌법은 이전 헌법과는 상이한 총리자격과 선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총리후보는 하원의원일 필요가 없으며, 선거 전에 각 정당 추천명단(최대 3명)에 이름을 올리면 된다. 명단에 오른 후 총리 후보는 지역구 의원이나 정당명부 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총리 후보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총리 후보를 내는 정당은 최소한 25석의 하원 의석(하원의 5%)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하원 과반수 표결로 총리에 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272조 유보조항에 따르면, 최초로 원이 구성된 후 5년 동안은 500명의 하원의원뿐

만 아니라, 250명의 상원의원도 총리 선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 상하 양원 과반수인 376표를 얻어야 총리에 선출될 수 있다. 또한 만약에 정당 추천후보 중에서 총리를 선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다시 정당 추천후보 이외의 인사를 포함하여 양원에서 선출절차를 밟도록 했다.

2017년 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원 관련 조항이다. 상원은 모두 20개 직능단체로부터 200명을 간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과도기 5년 동안에는 상원을 250명으로 정하되, 244명은 국가평화유지위원회(NCPO)가 선발위원회를 통해서 임명하게 되는데, 이 중 194명은 직접 임명하고, 50명은 20개 직능단체에서 간접 선출된 후보자 군에서 선발하게 된다. 나머지 6명은 군 최고사령관과 육·해·공군사령관, 국방담당 사무차관, 경찰청장이 임명된다. 결국 상원은 모두 친 군부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017년 헌법은 실제로 민정이양 후에도 5년 동안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군부의 권력 유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는 팔랑쁘라차랏당의 추천을 받은 뿌라웃이다. 그는 NCPO가 임명한 군부 대리인격인 상원 250표를 확보하고 있으니, 하원 500표 중 126표만 획득하면 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 한편 다른 당 후보들은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한 개 정당이 하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현행 선거법 하에서, 상원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다른 후보들이 총리에 선출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4. 총선의 돌발 변수들: 왕실의 정치개입

각 정당이 추천하는 총리 후보 등록 마감일인 2019년 2월 8일에

예기치 못한 돌발 사건이 발생했다. 예상대로 빠라우 총리는 팔랑쁘라차랏당의 추천 총리 후보로 등록했다. 그런데 같은 날 푸미폰 전 국왕의 첫째 딸이자, 와치라롱껀 현 국왕의 누이 우본랏 랏차간야(Ubonrat Ratchakanya) 공주가 탁싸계 정당인 타이락싸찰당의 총리 후보로 등록한 것이었다. 공주의 총리 후보 출마로 인해 총선 정국은 충격에 빠져들게 되었다. 태국에서는 태국 왕실의 일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우본랏 공주는 왕족신분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행보에 나섰지만, 결국 국왕의 반대 속에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었다. 와치라롱껀 국왕은 국영방송을 통해 낭독한 왕실칙령에서 “우본랏 공주가 왕족 신분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짝끄리 왕조(현 왕조)의 일원으로서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왕실가족 구성원을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왕실 전통 및 국가적 규범과 문화에 반하는 것이며,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표명했다(The Guardian 2019/02/08). 국왕의 발표 직후, 타이락싸찰당은 국왕의 명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주의 총리 후보 출마는 그 파장이 컸다. 친 군부정당 빠라차촌빠띠롭당은 타이락싸찰당이 왕실의 권위를 총선에 이용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선관위에 의뢰했을 뿐 만 아니라, 정당 해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서 선관위는 타이락싸찰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2019년 3월 7일에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타이락싸찰당의 해산을 결정했다(The Straits Times 2019/03/07). 야권의 한 축이 무너지면서 총선 판도가 크게 흔들렸다.

이 밖에도 총선 기간 내내 왕실의 정치개입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선거 이틀 전인 3월 22일 홍콩에서 치러진 탁싸의 딸 결혼식에 우본랏 공주가 참석하면서 그 정치적 배경이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3월 23일 저녁에는 국왕이 갑작스럽게 그의 부친인 푸미폰 전

국왕이 과거 행했던 연설의 한 구절을 발표했다. 국가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콘디)’을 선출해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하는 ‘나쁜 사람’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좋은 사람’이란 물론 여당 후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선거 직후에도 왕실의 개입은 뚜렷했다. 탁썬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이후, 국왕은 탁썬에게 수여했던 왕실 훈장을 박탈해버리기도 했다 (Prachatai 2019/03/24). 여기에 이어서 우본랏 공주는 그의 SNS에 “우리는 불행에 빠지지 말자. 화내지도 말자.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자” 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Ⅲ. 경제 및 대외관계

1. 6년간 최고 성장률 보인 2018년 태국경제와 동부경제회랑(EEC)

2018년 한 해 동안 태국경제를 나타내는 수치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2018년 태국의 경제성장률을 4.1%라고 발표했다. 당초의 태국정부 목표치인 4.5%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최근 6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성장률은 상반기에는 5%가까이를 기록하면서 호조를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3%대로 떨어졌다.⁵⁾ 민간소비 지출과 투자, 정부의 인프라 투자, 수출 증가 등이 2018년 경제성장률을 견인했다. 민간소비 지출은 전년 3.0%에서 4.6%로, 민간투자는 전년 2.9%에서 3.9%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정부투자는 전년 -1.2%에서 3.3%를 기록했다

5) 구체적으로 1-3월 +5.0%, 4-6월 +4.7%, 7-9월 +3.2%로 감소 추세에 있던 것이, 10-12월에는 +3.7%로 회복했다(MUFG 2019/03: 1).

(KOTRA 2019/03/21). 수출입 실적을 보면, 2018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2,524억 8,600만 달러(약 8조 240억 바트)를 기록했으나, 태국상업부의 수출 목표였던 8%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한편 2018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2,492억 3,200만 달러(약 7조 9,190억 바트)였다. 무역수지는 32억 5,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newsclip.be 2019/01/21).

2018년 한 해 동안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 수도 3,828만 명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MUFG 2019/02). 전통적으로 태국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국제관광 수입이다.⁶⁾ 태국에서는 관광산업이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의 하나로서, 태국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주력해왔다. 과거 10년 동안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군부쿠데타가 발생했던 2014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다.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자리 잡으며, 국제관광 수입 기준으로 2018년에는 세계 4위를 기록했다(MUFG 2019/02: 4).⁷⁾ 2018년 한 해 동안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년과 동일하게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전체 방문객의 약 30%(약 1,054만 명)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로 말레이시아(약 410만 명)와 한국(약 180만 명), 라오스(약 175만 명), 일본(약 166만 명)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른 관광수입은 2조 100억 바트(약 632억 달러)였다. 여기에 국내 관광수입 1조 682억 바트(약 336억 달러)를 포함하면, 2018년 관광수입 총액은 3조 바트를 넘어섰다(MUFG 2019/02). 중국인 관광객은 7월부터 10월에 걸쳐 일시적으로 급감했다. 2018년 7월 5일 푸켓(Phuket)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탑

6) 2017년 기준 태국의 국제관광 수입은 GDP의 12.6%를 차지했다(MUFG 2019/02: 8).

7) 2017년 국제관광 수입 기준, 태국은 미국,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한편 태국은 아세안최대 관광대국(575억 달러)으로 2위 말레이시아(183억 달러)를 크게 앞서고 있다(MUFG 2019/02).

승한 배가 전복되면서 4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타격이 되었다. 사고 직후 빠라윗 부총리가 기상 경보를 무시한 결과라는 발언과 함께 중국 측으로 원인을 돌리자, 중국 내에서 거센 반발과 비난이 쏟아졌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호텔 예약을 대거 취소하면서 방문객 수의 직접적인 감소로 이어졌지만, 태국정부가 국내 주요 공항에 중국인 전용 입국심사대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수습과 대응에 나서면서,⁸⁾ 다시 회복세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한편 태국 투자위원회(BOI)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청액은 약 5,826억 바트로 전년 2,889억 바트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외국인 자본 10% 이상을 가진 외국계 기업의 투자신청은 전년 888건 대비 17% 증가한 1,040건을 기록했는데, 그 중 신규가 369건, 사업 확대가 671건이었다(MUFG 2019/03: 3). 2018년 태국의 최대투자국은 여전히 일본이었고, 전체 투자신청의 32%를 차지했다. 일본의 2018년 투자 인가액은 936억 바트(315건)로 전년에 이어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2013년에 2,905억 바트(686건)에 달했던 것을 생각하면 투자액은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2018년 투자국 2위는 아세안, 3위는 중국, 4위는 EU, 5위는 미국이었다(MUFG 2019/03). 주목할 점은 이들 투자가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⁹⁾ 구체적으로 2018년 국내/국외를 합계한 전체 투자 인가액 중 EEC 지역의 투자가 약 3,433억 바트로 전체 62%를 차지했는데, 신청액을 기준으로 하면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UFG 2019/03: 12-13).

8) 중국인 관광객은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2%, 9월에는 -15%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스포츠투스 2018/11/22). 태국정부는 8월 3일부터 쑤완나폼 공항과 돈므엥 공항, 치앙마이 공항, 푸켓 공항, 핫야이 공항 등에 중국인 전용 입국심사대를 설치했다.

9) 태국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신청액은 전년 대비 +42.9%를 기록했는데, 지역별로 EEC지역으로의 투자신청이 약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KOTRA 2019/03/21).

군사정부는 집권 초기에 대형 인프라 정비 사업이 포함된 중장기적 국가경제개발 전략을 정책으로 내놓았다.쁘라윿 정권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전략으로서 ‘Thailand 4.0’을 2015년에 발표했는데, Thailand 4.0은 기존의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자본·기술 집약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계획이다.¹⁰⁾ Thailand 4.0의 실현을 위한 핵심 장소가 바로 동부지역 차츄싸오(Chachoengsao), 촌부리(Chonburi), 라영(Rayong) 3개 지역이며, 이곳을 동부경제회랑(EEC)이라고 명명했다. 이들 지역은 이미 일본 및 한국, 해외 기업 등이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는 공업단지이기도 하다. 태국정부는 총액 약 1조 5,000억 바트를 투입하여 이들 지역에 공항 및 항구 등의 대규모 인프라를 정비하여 경제특구로 구축할 계획이다.¹¹⁾

동 국가전략의 수립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태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낮은 실업률 1-2위를 기록하는 국가이다(김홍구·이미지 2018: 50-51). 2018년 실업률도 1% 초반 대를 유지했다. 이와 같이 태국은 기존의 신흥국에서 보이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 농촌 간 격차 및 지역 간 불균형, 핵가족화 문제, 공해, 환경 문제 등에 직면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보이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및 생산노동 인구의 감소, 그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불법 외국인 노동자 유입 문제도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국정부가 주목하는 것이 자국의 디지털 경제 구축과 자동화

10) 태국정부는 자국의 경제 구조의 변화를 4단계로 구분하여, 농촌사회를 Thailand 1.0,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를 Thailand 2.0, 중공업중심의 공업화를 Thailand 3.0로 명명했다. 한편 Thailand 4.0의 10대 중점산업을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관광, 바이오테크, 식품가공, 로봇, 물류와 항공, 바이오 연료, 디지털, 의료기구 산업 등으로 지정했다.

11) 우타파오(U-Tapao) 공항과 램차방(Laem chabang), 맵따퓏(Map Ta Phut) 항구 재정비, 공항철도 개발 등이 계획되어 있다.

추진에 따른 생산능력의 향상인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에는 군사정권의 집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다. 과거 역대 정부 또한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었지만, 2006년 이후 지속된 불안정한 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구체화되지는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뛰어들었던 태국의 물 관리 사업인데,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된 바 있었다. 현 군사정권은 과거 정부가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던 인프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킴으로써, 군사정권 아래 오히려 안정을 찾고 있는 태국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국내외에 인식시키고자 한다.

민간정부 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둔 2018년은 ‘EEC 개발법’이 5월 14일에 시행되면서 동 사업이 본격화된 한 해였다. 총리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EEC정책위원회와 정책사무국도 꾸려졌다. EEC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외자본의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의 외자유치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2. 대외관계: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속에 서방국가와도 관계 회복

2014년 성립된 군사정권은 서방국가와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특히 미국은 쿠데타 직후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탄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민간정부 복귀를 위해 압력을 가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비군사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인도적 지원은 대부분 계속되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에 직면한 태국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군사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서양 국가들의 제재를 상쇄할 수 있었다. 이후 태국과 중국 간의 급속한 관계

진전에 우려를 표명했던 미국과 EU는 2017년부터 태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게 되었고,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태국정부가 구체적인 총선 일정을 공언하는 등의 민정이양의 의지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대안 시장으로서 태국시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군사전략적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와 남중국해 분쟁, 로힝자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태국의 협력을 통해서 동남아와 인도양 무역루트를 확보하고, 군사적 움직임을 정찰할 수 있으며, 중국의 영향력도 견제할 수 있다(김홍구·이미지 2018: 55-56). 양국 간에는 매년 코브라 골드 군사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쿠데타 직후 축소되었던 미군 병력도 2018년에는 규모가 커졌다. 양국 국방장관 간의 회담도 2018년 한 해 동안 4월과 10월에 두 차례나 개최되었다(Emma Chanlett-Avery et al. 2018).

미국과 EU는 태국의 민주주의와 총선에도 일관된 관심을 표명해 왔다. 2019년 3월 24일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무부는 신속한 개표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7일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로버트 팔라디노(Robert Palladino)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태국 총선에 대해 “국민 뜻을 반영하는 민주적 정부로 돌아가는 긍정적 징후”라며 “미국은 새로운 태국 정부와 민주주의와 안보 등 양국 관계를 더 가깝게 할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변인은 “우리는 개표결과에 대한 신속한 발표와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하는 태국 국민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언급했다(KBS News 2019/03/27).

2018년은 소원했던 EU와의 정치적 관계에서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인 한 해였다. EU 외무장관은 “새로운 헌법에 따라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 협정 논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2018년 2월에는 이탈리아의 알제리노 알파노(Angelino Alfano) 외무부 장관과 영국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외무부 장관이 태국을 각각 공식방문 했다. 총선 직후에는 영국 외교부 마크 필드(Mark Field) 아태지역 담당 부장관이 성명을 내고 태국에서 선거가 실시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과 함께, 공개적이고 공정한 정부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KBS News 2019/03/27). 유럽 연합 외교 문제·안보정책 대변인도 (선거의)비정상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태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계획, 특히 EEC 경제개발에 크게 주목하며, 발 빠르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다. 특히 EEC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는 지금, 태국정부는 중국정부와의 협력과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8월에는 중국에서 500명이 넘는 EEC사찰단이 태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태국정부는 중국이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유럽을 잇기 위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지원한다고 표명했으며, EEC정책 사무국장은 “일대일로와 EEC: 미래를 향한 연계”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기초한 인프라 건설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의 지원으로 라오스에서 건설이 진행 중인 고속철도는 2021년에 완공될 계획인데, 방콕-동북부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라오스와 연결될 예정이다. 일대일로 사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라오스에서 방콕으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건설에 중국이 태국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라오스-방콕을 잇는 고속철도는 최종적으로는 중국과 연결되게 된다. 태국의 입장

에서 보면 EEC는 중국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다(大泉 2018/10/25). 한편 태국정부는 2019년 1월에 개최된 내각회의에서 방콕-동북부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의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해외에서의 차입을 인정하기로 최종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원래 국내 금융 기관의 차입만을 인정하기로 했던 기존의 결정을 반복한 것이다. 현재 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글로벌이코노믹 2019/01/10). 이처럼 태국은 군사정권이 집권한 후, 무역, 투자, 수출, 관광산업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 7월 발생한 푸켓사고 등으로 인한 중국과의 일시적인 관계 악화가 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중국의 경기둔화, 미중 무역 갈등의 향방,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이 우려되고 있는 지금,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타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와 EEC의 연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의 최대 투자국 일본도 EEC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약 절반이 EEC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본투자의 약 40%가 이들 3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EEC개발을 두고 태국의 최대 투자국인 일본과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이 협력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2018년 5월 31일에는 일본과 중국, 태국 3개국의 협력을 주제로 3개국의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여한 세미나가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동 세미나에서는 EEC개발에 대한 3개국 간의 민간기업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었다.¹²⁾

이와 같이 태국정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군사정권에 타당성을

12) 세미나 개최에 앞선 2018년 5월 9일에는 일본과 중국이 “제3국의 중-일 민간경제 협력”에 대한 각서를 체결했다(NNA ASIA 2018/06/01).

부여한 중국과는 여전히 우호관계를 과시하면서도, 일본과 서방국가와의 정치, 경제적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와 같은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본격적인 총선을 앞두고 군사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3. 한국과의 관계: 양국 교역액 역대 최고치 기록한 수교 60주년

한국과 태국이 수교한 지 60주년이 되는 2018년은 경제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달성한 한 해였다. KOTRA에 따르면, 2018년 한-태 양국 간 교역액은 14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다음 해인 2011년 교역액(전년 대비 +30.5%, 약 139억 달러)을 넘는 수치이다. 한국의 태 태국 수출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85억 500만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55억 8,2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 29억 2,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KOTRA 2019/03/21).

한국과 태국의 인적교류는 2018년에도 활발했다. 상호 방문 관광객 규모는 아세안 국가 중 단연 최고 수준이다. 2018년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보다 증가해 약 180만 명을 기록했는데, 태국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자국을 많이 찾는 국가이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 중에서 태국인이 한국을 가장 많이 찾고 있다. 2018년 한국을 찾은 태국인 관광객 수는 약 56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6만 명이 증가했다. 양국의 인적, 문화적 교류에 힘입어 태국 내 한국어 교육의 위상도 여전히 높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중에서 수능에 한국어를 포함시킨 최초의 국가이자, 해외에서 한국어를 수학하고 있는 학생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다. 태국에서는 2008년 중등학교에 한국어가 제 2외국어로 채택되었

고, 2016년 6월에는 대학입시 PAT (Professional & Aptitudes Test)에 한국어가 제 2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었다. 2018년 현재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등학생은 118개교 약 3만 7,00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018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첫 한국어 대학입시에서는 약 5,500명이 시험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연 2018/10/11).

이러한 활발한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한다. 주한 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약 20만 명의 태국인 이주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2만 명이 불법체류자이다.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2016년을 기점으로 1위국이었던 중국을 크게 앞섰다(조선일보 2018/11/05).¹³⁾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를 ‘특별 자진 출국 기간’으로 지정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8/10/25). 해외 송금으로 인한 국부유출과 근로 시장의 위축 등 불법노동자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일각에서는 불법체류자 1위국 태국을 무사증 입국 제외국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될 정도로, 동 문제는 한-태 양국 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2018년 5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신남방정책 관문 Thailand 4.0’을 주제로 방콕에서 개최된 포럼에 한국과 태국의 기업인 약 300명이 참가했다.¹⁴⁾ 16일에 뿌라웃 총리가 한국 경제사절단 약 180명을 총리 관저에 초청하여, 투자 유치 및 양국 간 협력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앞서 살펴본

13) 2018년 8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7만 1,4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태국인 불법 체류자 중 여성이 6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이 타이 마사지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조선일보 2018/11/05).

14) 이 포럼은 매경미디어그룹과 KOTRA, 한·아세안센터에 의해 공동으로 개최되었다(매일경제 2018/05/13).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은 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EC 경제개발 정책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일본과 중국이 EEC 개발에 있어서 협력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이 자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EEC 정책과의 이해관계에서 접점을 찾아 협력분야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신남방정책과의 접점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시급해 보인다. 태국이 자국의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위해 디지털 산업과 정보통신기술, IT 등 기술 집약형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에서 경제대국 태국은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메콩권 경제의 관문이자 중심지로서 기대 받고 있다. 2019년 11월에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태국이 2019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방한하게 된다. 한-태 양국은 1958년 10월 수교 이래 60년간, 문화적,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이러한 태국 시장의 중요성과 문화적, 인적 교류에 비해 한-태 양국의 경제교류는 상대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았다. 대 태국 교역 비중은 여전히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2018년은 양국 교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의미 있는 성장을 달성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2019 태국 환대주간(2019 Thai Welcome Week)”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아시아뉴스통신 2019/04/10). 아세안 최고 방한시장인 태국에 대한 한국정부와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IV. 전망: 태국 총선결과와 그 정치·경제적 함의

2019년 3월 24일 치러진 태국 총선에서는 군사정권을 지지하는 팔랑쁘라차랏당이 예측과는 달리 최다 득표수를 획득했다. 태국선관위는 28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개표 결과는 팔랑쁘라차랏당이 약 840만 표를 획득하면서 탁신허계 정당 프어타이당의 약 790만 표를 앞섰다고 밝혔다. 아나콧마이당이 620만 표로 3위였고, 민주당(390만표)과 폼짜이타이당(370만표)이 그 뒤를 이었다. 유권자는 약 5,100만 명인데, 그 중 약 3,820만 명이 이번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율은 74.7%에 달했으며, 그 중에서 5.5%에 해당하는 210만 표가 무효 처리되었다고 설명했다.

선거 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부정선거 의혹이다. 선관위는 당초 투표 당일 밤에 비공식적 개표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발표를 수차례 연기하면서 의혹이 커졌다. 탁신허 전 총리와 미국무부, 국제선거 감시단체인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안 네트워크(ANFREL)’ 등은 일부 결과 발표가 매우 부정확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부 대학생 연합은 선관위원들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태국 선관위는 투표용지 분실 등을 이유로 8개 투표소에 대해 재선거 또는 재검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66명 등에 대해서는 고소내용을 모두 조사한 뒤 최종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Bangkok Post 2019/04/05). 선관위는 상하원 구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오는 5월 9일이 되어야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 발표를 바탕으로 각종 언론이 집계한 결과를 종합하면 각 당 의석수 윤곽은 다음과 같다(The Straits Times 2019/03/29).

탁신허계 프어타이당이 총 137석, 군부 정당 팔랑쁘라차랏당이 총 116석을 얻어 각각 제 1당과 2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나콧

마이당은 80석, 민주당은 52석, 폼짜이타이당은 51석으로 각각 예상된다. 프어타이당은 지역구 의석이 137석이지만 비례대표는 0석이 예상된다. 탁썬계 정당을 견제하려는 선거제도의 결과이다. 팔랑쁘라차랏당이 지역구 97석에 비례대표 19석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향후 보궐선거를 치르고, 비례대표 의석수에 대한 계산이 완료되어야 정확한 최종 의석수를 알 수 있다.

이번 선거결과에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득표수에서 예상을 었고 팔랑쁘라차랏당이 프어타이당을 앞섰다는 사실이다. 팔랑쁘라차랏당의 승리에는 관영언론과 군, 공무원, 유리한 선거제도, 선관위의 역할이 컸다. 당대표를 비롯한 요직에는 현직 장관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채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 직전에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다만 뿌라웃 총리만은 끝까지 총리직을 고수하면서 선거를 절대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고 갔다.

또한 새롭게 규정된 비례대표 산출방식에 따라 프어타이당은 제 1당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150명의 비례대표 가운데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더불어 자매정당인 타이락싸찰당이 선거 직전에 해산되면서 커다란 정치적 손실도 떠안게 되었다. 프어타이당의 패배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동북부 다음으로 탁썬파에 대한 지지가 강했던 북부 지역에서 팔랑쁘라차랏당과 차이가 크지 않은 의석수를 확보했다는 사실이다. 프어타이당이 획득한 의석수는 29석이고, 팔랑쁘라차랏당은 25석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민주당의 대 패배이다. '엘로셔츠'의 상징이자 2001년부터 탁썬계 정당과 양당 구도를 이루고 있던 민주당은 52석을 획득하는 데에 그쳤다. 패배의 원인 중 하나는 선거 기간 중 민주당이 모호한 정치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선거 전에 민주당 아피 셋 당대표는 현 총리인 뿌라웃을 총리로 선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

력하게 비쳤는데, 이러한 발언이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하던 반 탁썬 세력의 표를 팔랑쁘라차랏당에게 빼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던 방콕에서도 참패했다. 과거 2011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방콕 33개 선거구 중 23석을 확보한 바 있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단 한 곳에서도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이변은 창당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정당 아나콧마이당의 예상을 뛰어넘은 선전이였다. 2001년부터 전승무패 신화를 달성해 온 탁썬계 프어타이당이 제 1당임에도 불구하고 과반에 턱없이 부족한 의석수를 기록한 것과, 태국 기득권층을 대표하며 약 70년의 역사를 가진 최장수 보수정당 민주당이 몰락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아나콧마이당은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 연령대를 보면, 유권자 5,100만 명 중에서 38.1%가 26세-45세였고, 14.3%인 730만 명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18세-25세였다(The World News 2019/04/10). 아나콧마이당의 선전은 기존의 정치판을 뒤엎을 만한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아나콧마이당은 기존 정당들과 비교해 명확한 정강정책을 제시하고 소셜 미디어 캠페인에 의존해 선거를 치렀다. 국방비 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군부 통치에 공개적으로 도전했다. 집권 후에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며,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국방비를 삭감해 의료 및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때문에 총선이 끝난 지금 타나턴 당대표는 군사정권의 주 공격 목표가 되고 있다. 그는 과거 2014년 쿠데타 반대 시위 주모자의 도피를 도와준 폭동 교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군사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 주식을 소유한 채 하원의원에 입후보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위법 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당선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같은 이유로 아나콧마이당 당선자 11명도 선관위에 무더기로 고발된 상태이다.

그 외 특징으로는 강력한 지역거점을 확보하고 있었던 찻타이 팻타나당과 찻팻타나당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이 정당들은 각각 중부 및 동북부 지역에서 후견-피후견 네트워크와 지방의 거점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연립정부에 참여해 왔다. 또 민주당과 비슷한 지지를 얻은 폼짜이당이 대마초 재배 자유화를 정책으로 내세워 선전한 것도 주목할 만한데, 폼짜이당은 이 정책이 앞으로 연립정부 참여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향후 태국 정치의 향방에 있어서 관건은 연립정부를 누가 주도해서 구성하느냐는 것이다. 프어타이당은 의석수에서 원내 제 1당이 되었고, 팔랑쁘라차랏당은 득표수에서 1위를 했으니, 서로 연립정부 구성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어타이당은 다수의 군소정당들과 연합하여 하원 과반수에 근접한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팔랑쁘라차랏당도 프어타이당의 연합세력과 비슷한 의석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프어타이당이 주도해 연립정부를 구성하더라도, 상원이 하원과 함께 총리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은 현 제도에서는 프어타이당 후보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연정을 구성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여소야대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원에서 예산안이나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통해 팔랑쁘라차랏당 총리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물론 팔랑쁘라차랏당의 뿌라웃이지만, 연립정부 구성과 관련하여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폼짜이타이당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당 소속 총리 후보인 아누틴 찬위라꾼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연정과 관련한 중요한 변수는 비례대표 의석배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확정하지 못한 선관위는 얼

마 전에 최소 득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의 부담을 안지 않겠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선관위는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배분 기준을 변경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재조정하고,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린 후 이들을 팔랑뿌라차랏당 주도 연정에 합류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외에 일부 지역에서 재선거와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각 정당별 의원 수가 다시 조정되어 연립정부 구성 주도권의 향배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치앙마이외의 한 선거구에서는 프어타이당 당선자가 매표 행위로 당선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5월 중 재선거를 치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만일의 경우, 팔랑뿌라차랏당이나 프어타이당 중심의 연립정부 구성이 실패하게 될 때에는, 거국내각을 만들거나, 정당 추천의 총리후보가 아닌 새롭게 원외인사를 총리로 세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야당은 거국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한편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2019년 경제성장률을 3.5-4.5%로 설정했다. 2019년 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적인 변수가 존재한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경제성장률의 오르내림이 매우 큰 국가인데,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GDP의 약 70%를 수출에 의존하는 외수중심의 수출형 경제구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변동 등 세계경제의 영향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또한 2019년에 새롭게 출범하게 될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의 방향도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불공정 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적 여파와 연립정권 구성을 들

러싼 불확실성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해 태국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정적인 승자가 없는 이번 선거에서, 만약 팔랑뽀라차랏당 주도의 연립정권이 수립되더라도 1년을 채 넘기기 힘들 것 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 불안은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을 지연시킬 것이다. 세계은행은 태국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공 투자 프로젝트와 민간투자유인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2019년 태국의 GDP 성장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예상했다. 특히 태국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EEC 개발의 민관합작투자(PPP)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투자자들은 선거 기간 중 다수의 정당들이 공약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시행 여부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 후 야당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나콧마이당에 대한 탄압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총선 직후 아나콧마이당의 타나턴 대표가 과거 쿠데타 반대 시위 주도자의 도피를 도운 폭동 교사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EU 등 12개국 외교관과 유엔 인권부문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를 참관하기도 했다. 군사정권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배분이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지면 서방국가들은 선거 공정성에 더욱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간정부가 들어서면 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 논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EU 국가와의 관계진전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 김홍구·이미지. 2018. “태국2017: 군부의 권력 유지 위한 명분 찾기.” 『한국태국학회논총』 24(2): 29-68.
- 김홍구. 2018. “쿠데타 후 4년간 총선 4번 연기한 나라, 태국.” 프레시안. 08월 06일.
- 김홍구. 2019. “‘총리 출마 해프닝’ 공주가 보여준 태국 정치 요지경.” 『프레시안』 2월 21일.
- 김주연. 2018. “한국어 교육, 떠오르는 미래 자원.” 『내일신문』 10월 11일.
- 大泉啓一郎. 2018. “タイのEEC開発と中國の一帶一路構想.” 日本總研 『Asia Monthly November』 10월 25일.
- Emma Chanlett-Avery, Ben Dolven, Wil Mackey. 2018. “Thailand: Background and U.S. Rel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2월 13일.
- Freedom House. 2018. “Freedom in the World 2018, Democracy in Crisis.”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freedom-world-2018> (검색일: 2018.04.05)
- MUFG. 2019. “MUFG Thailand Monthly.” February.
- MUFG. 2019. “MUFG Thailand Monthly.” March.
- KOTRA. 2019. “6년 내 최대 경제성장률 달성한 태국, 2019년 전망은?” KOTRA News 3월 21일.

인터넷 언론 기사

- 글로벌이코노믹. 2019.01.10. “태국 고속철도 프로젝트, 결국 해외자금 ‘의지’... 중국돈 유력?” <http://news.g-enews.com/view>.

태국 2018: 군부의 ‘불완전한’ 민간정부 복귀를 위한 막바지 준비 155

php?ud=201901091630239649d6eb469fd3_1&md=20190109
164616_K (검색일: 2019.03. 01)

스포츠조선. 2018.11.22. “보트사고·폭행사건 후폭풍...태국 찾는
중국인 ‘급감’.”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81122000000000015043&ServiceDate=20181122> (검
색일: 2018.12.01)

매일경제. 2018.05.13. “韓·태국 재계·관계인사 300여명 사업협력
모색.” <https://mk.co.kr/news/economy/view/2018/05/303804/>
(검색일: 2018.05.30)

아시아뉴스통신. 2019.04.10. “한국관광공사, 2019 태국 환대주간 실
시.” <http://www.anews.com/detail.php?number=1669598>(검
색일: 2019.04.15)

조선일보. 2018.11.05. “‘타이 마사지’가 불러온...태국인 불법체류 12
만명.” [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8110
500072#Redyho](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8110500072#Redyho) (검색일: 2019.02.01)

연합뉴스. 2018.10.25. “한국 내 불법체류 태국인 자진출국 유도에
‘시큰둥’...통보 3명뿐.” [https://www.yna.co.kr/view/AKR
20181025048300076?section=search](https://www.yna.co.kr/view/AKR20181025048300076?section=search) (검색일: 2018.10.28)

Bangkok Post. 2019.04.05. “EC may seek court ruling on its MP-seat
system.” [https://www.bangkokpost.com/news/general/
1659780/
ec-mulls-court-verdict-on-its-mp-seat-system](https://www.bangkokpost.com/news/general/1659780/ec-mulls-court-verdict-on-its-mp-seat-system) (검색일: 2019.
04.08)

KBS News. 2019.03.27. “미 국무부, 태국 총선 개표결과 발표·부정
의혹 조사 촉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
4166790](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66790) (검색일: 2019.03.30)

newsclip.be. 2018.02.13. “EU、タイ軍政と閣僚レベルの交流再開
伊、英外相が相次ぎ訪問.” <http://www.newsclip.be/article/>

2018/02/13/35487.html (검색일: 2018.11.01.)

NNA ASIA. 2018.06.01. “E E C開発、中日タイの協力必要=セミナー.” <https://www.nna.jp/news/result/1770002#%E6%97%A5%E4%B8%AD%E3%80%80%E6%B0%91%E9%96%93%E7%B5%8C%E6%B8%88%E5%8D%94%E5%8A%9B> (검색일: 2018.11.01.)

Prachatai. 2019.03.24. “Support good people to rule this country, says King of Thailand on eve of election.” <https://prachatai.com/english/node/7990> (검색일: 2019.03.25)

Reuters. 2019. 01. 01. “Thai King to be crowned in ceremonies May 4-6.” <https://www.reuters.com/article/us-thailand-king/thai-king-to-be-crowned-in-ceremonies-may-4-6-idUSKCN1OV1BY> (검색일: 2019. 02.02)

The Guardian. 2019.02.08. “Thai king denounces sister’s bid to become prime minister.”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feb/08/thai-princess-to-run-for-prime-minister-against-ruling-military-junta> (검색일: 2019.02.18)

The Nation. 2018.10.05. “Sam Mit co-founder says group committed to Palang Pracharat.” <https://www.pressreader.com/thailand/the-nation/20181005/282299616112785> (검색일: 2019.02.18)

The Straits Times. 2019.03.07. “Thai court dissolves Thaksin-linked Thai Raksa Chart party over princess nomination.” <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judgement-day-dawns-for-thai-raksa-chart> (검색일: 2019. 03.10)

The Straits Times. 2019.03.29. “Thailand’s pro-army party wins popular vote: Election Commission” <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thailands-pro-army-party-wins-popular-vote->

태국 2018: 군부의 ‘불완전한’ 민간정부 복귀를 위한 막바지 준비 157

election-commission (검색일: 2019.04.01)

The World News. 2019.04.10. “Poll shows Thais are wary about the new government’s potential to end conflict”
<https://theworldnews.net/th-news/poll-shows-thais-are-wary-about-the-new-government-s-potential-to-end-conflict> (검색일: 2019.04.15)

(2019.04.11. 투고, 2019.04.17. 심사, 2019.04.27. 게재확정)

<Abstract>

Thailand 2018:
The Military's Last Stage Preparations for the Return of
“Incomplete” Civil Government in Thailand

KIM Hongkoo · LEE Miji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Thailand in politics, economy, diplomacy, and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 2018 and propose its future prospects.

In 2018, Thailand made preparations for all-out election campaign fights with each of the parties electing their head and a new party being formed.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country's politics in 2018 was the general election schedule to transfer power to civil government. In 2017, the military regime of Thailand postponed a general election several times even though it was impossible to transfer power to civil government “fully” based on the Constitution. They needed confidence that an “incomplete” civil government to ensure the maintenance of the current military system, would be possible even after a general election. As the Thai government promised to hold a general election, the country's political relations with the U.S.A. and EU improved. In 2018, the nation's economy recorded the highest growth rate in recent six years, continuing to

grow after the previous year. It seemed that the EEC economic development plan proposed by the current military government in the early days of its rule made progress in 2018.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under the plan, in particular, the nation's economic collaboration with China became even closer. After a general election, the diplomatic relations and economy of Thailand will be under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stable transfer of power to civil government, if possible, and policy directions of the new government. There is much attention to its future course.

Key Words: Thailand, Military Regime, Power Transfer to Civil Government, General Election, Eastern Economic Corridor(EEC), Diplomatic Relations, Incomplete Civil Government

